

류진표 조대여고 교사, 대입 진로진학지도 ‘전국 으뜸’

교육부·대교협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비수도권 유일
박선영 광주동신고 교사 ‘최우수상’…사례집 전국 배포

광주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류진표 교사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진로진학지도를 잘한 교사로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주관한 ‘2025년 대입 진로진학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조대여고 류진표 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동신고등학교 박선영 교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는 전국 고등학교의 대입 진로진학지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해 내

실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모에는 17개 시·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류진표 교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 3명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특히 2명은 경기, 인천 소속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류 교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대상을 받은 류진표 교사는 현재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부회장,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진학상담팀·진학정책연구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대여고 3학



류진표 교사



박선영 교사

년 진학부장 겸 ‘대입전문디렉터’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류 교사는 고3 진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2월 학생 진학지도설명회를 개최하며 방향성을 제시하고, 3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올해 입시 경향, ‘사탐권’ 등 주요 변수를 분석해 제공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모집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년도 사례, 전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내에 입시 질문 게시판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기 위해 진학교사들이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진학교사들은 수도권 및 주요 대학 자료집을 만들고, 대학별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진표 교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시기별로 현장 맞춤형 자료집 제작, 학년별 진학 스터디, 학생 질의응답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학지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동신고 박선영 교사는 올해부터 3학년 진학부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박 교사는 광주 진로진학지원단 대입제도연구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진학지도 자료집 ‘빛고을 진학대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교협은 추후 시상식을 열고 대상 3명(상금 각 100만원), 최우수상 5명(상금 각 30만원), 우수상 10명(상금 각 10만원)에 대해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6학년도 수능에서 10년 만에 광주지역 만점자가 배출된 데 이어 전국에서 가장 진로진학을 잘한

교사가 광주에서 탄생하는 등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학생, 교사 모두 탄탄한 교육정책의 기반에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로진학과 신설, 고등학교에 스터디 카페형 ‘365-스터디룸’ 조성,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학지도를 시작하고, 1교 1대입디렉터 배치, 광주진학부장협의회·광주진로진학지원단 지원,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 운영, 자체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보급 등을 추진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호남대 HUSS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2차년도 성과공유회 개최

3차년도 교과목 계획 논의

호남대학교 글로벌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 단장 송창수)은 최근 퍼니스 카페엔라운지에서 ‘HUSS 2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차년도 사업 운영 전반의 성과를 공유하고, 3차년도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교과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사업관리위원, 교육과정위원, 자체평가위원, 교양대 교학과, 참여학과 교원 및 참여 학과 학생 대표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호남대학교 글로벌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최근 퍼니스 카페엔라운지에서 ‘HUSS 2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2차년도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학생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전공·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

대,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3차년도 계획 발표와 함께 각 학과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비교

과 프로그램 구성, 평가 체계 개선, 현장 연계형 글로벌공생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업단은 이 자리에서 제1단 의견들을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학생 참여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송창수 단장은 “2차년도 사업을 함께 만들어 온 교수님들의 경험과 제안을 바탕으로, 3차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융합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HUSS 사업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 역량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AI시대’ 인간의 마음과 소통 다룰 강연 들어볼까

박진영 대표 ‘AI 시대 공감대화법’ 오늘 호남대 공자학원서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소통을 다룰 강연이 마련된다.

14일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대표 박진영·사진)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남대 공자학원에서 ‘AI 시대 공감대화법’을 주제로 한 특별 무료 강연을 진행한다.

“공감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공감 대화법”의 저자이자 전세대 객원교수를 맡고 있는 박 대표는 소통과 공감, 경청을 강요하는 만큼 이번 강연에서 이를 설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이번 강연에서 AI가 아무리



박진영 대표

똑똑해져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진짜 공감’의 힘, 그리고 부모와 자녀, 타인을 살리는 공감 소통법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이번 강연은 시대 변화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공감’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으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대화법과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누구나 무료로 간편한 QR코드 또는 링크 신청을 통해 참여를 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광주관광공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2년 연속…지역사회 상생·사회공헌 성과 인정

광주관광공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기관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로, ESG 성과를 반영한 총 19개 심사지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첫 인증 이후 지속가능성과 상생·협력 기반의 사회공

헌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온 점을 인정받아 올해 재인정을 받았다.

공사는 ESG경영 방향에 따라 명절 및 연말 복지시설 후원, 농촌 일손돕기 및 김장 나눔, 광주전 평화활동,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해지역 물품 지원 등 지역 밀착형 공헌활동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왼쪽 네 번째)과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오른쪽 다섯 번째), 박병순 사단법인 고려인물사랑하는의료인모임 후원회장 등이 후원금을 전달식 했다.

광주시의사회·(사)고사모

화순전대병원에 백혈병·소아암 환아 치료비 쾌척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접견실에서 광주시의사회와 사단법인 고려인물사랑하는 의료인 모임(고사모)이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위한 치료 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의료계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의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화순전대병원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을 비롯해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박병순 고사모 후원회장, 김봉학 한국백혈

병소아암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금은 지난해 열린 ‘백혈병 소아암 환아 및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제3회 희망나눔 콘서트’ 수익금 일부로 조성됐다.

광주시의사회와 고사모는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 고려인 진료소 운영 지원, 지역 복지기관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고, 올해 소아암 환아 지원까지 나눔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정섭 회장은 “이번 치료비 지원이 환아와 가족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



영광축산농협은 최근 농촌사랑기금으로 마련한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안전헬멧 30개를 영광경찰에 전달했다.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용출 영광축산농협 조합장은 “영광

경찰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완도군 청산면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훈훈

재광향우회·재경향우회 등 후원…어르신·경로당에 전달

완도군 청산면은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자)에서 관내 기관·단체 및 재광향우회(고문 윤풍식, 회장 지광일), 재경향우회(회장 최한일) 후원과 함께 김장김치 900여 포기를 담가,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나눔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를 후원한 윤풍식(국민산업 회장) 재광향우회 고문은 “고향의 어르신들이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지광일 청산면장은 “기관 단체 및 후원 기업들의 도움으로 김장나누기 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순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여러 기관 단체장들의 도움으로 독거 노인들에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회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이 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전남도, 지역 정신건강 종사자 표창·성과 공유

전남도는 최근 진도 솔비치에서 ‘2025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시·군 우수사례 발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전남도와 광역·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고흥·신안 등 3개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총 8점의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시·군 우수사례로는 여수시의 ‘여수사건 유족을 위한 프로그램인 치유의 길, 여수’, 구례군의 ‘자립을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 내 손으로 차리는 한 끼’, 화순군의 ‘주인 축제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영



2025년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광군의 ‘정신건강활동가를 활용한 노인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이 선정됐다. 박정열 기자 hoibul@gwangnam.co.kr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1급 승진 △광주전남 도회 사무처장 흥광희